

한화큐셀재팬, 日 주택 특화 태양광모듈 선보인다

日 최대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참가

한화큐셀재팬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되는 '국제 스마트 그리드 엑스포 2019'에 최초로 참가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 약 6만5000명이 방문한 일본 최대 스마트 그리드 전시회로 한화큐셀재팬은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서 고효율 태양광 모듈과 주택용 및 상업용 솔루션을 전시할 계획이다.

국제 스마트 그리드 엑스포는 세계 최대급 스마트 에너지 전시회 '월드 스마트 에너지 위크'에서 진행되는 9개 전시회 중 하나다. 한화큐셀재팬은 지난해까지 월드 스마트 에너지 위크 전시회 중 태양광 모듈 제조사들이 주로 참가하는 'PV Expo'에 참가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나아가는 사업 전략 하에 국제 스마트 그리드 엑스포에 최초로 참가한다는 계획이다.



한화큐셀재팬 'Smart Grid Expo 2019' 부스 전경.

/한화큐셀재팬

한화큐셀재팬은 이번 엑스포에서 자가소비 시장 공략을 위해 주택용 및 상업용 시장에 적합한 고효율 프리미엄 태양광 모듈과 에너지 솔루션을 함께 전시한다. 특히 이번 엑스포에 전시하는 큐피크 듀오(Q.PEAK DUO) 모듈은 한화큐셀의 전매특허인 퀀텀(Q. ANTUM) 기술과 하프셀 기술이 적용돼 400Wp 수준의 높은 출력을 자랑한다. 이와 함께 지붕이 좁은 일본 주택의 특성을 감안해 일

반 모듈(60셀·72셀)과 조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작은 사이즈(32셀·48셀)로 제작된 소형 주택용 모듈도 전시한다.

또 한화큐셀재팬은 분산된 소규모 발전설비들을 하나의 대규모 발전소처럼 통합 운영하는 가상 발전소를 소개하고 수상태양광 발전소의 모습이 담긴 가상현실 영상을 상영해 태양광 발전의 다양한 적용 사례를 보여줄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ujjin6326@metroseoul.co.kr

동상 없는 광화문광장



기자 수첩

김현정 (정책사회부)

기자가 다니던 초등학교에는 구령대를 중심으로 양옆에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 학생들이 이 위인들처럼 훌륭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어른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이들은 '밤 12시가 되면 세종대왕이 깨어나 책장을 넘기고, 이순신 장군이 그 목을 벤다'는 해괴망측한 괴담을 퍼뜨리며 킁킁거렸다.

지난달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터 잡은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 존치 문제로 들쭉였다. 시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새 광화문광장 설계안에 따르면 이순신 장군 동상은 세종문화회관 옆으로, 세종대왕 동상은 정부서울청사 앞으로 옮겨진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순신 장군은 1968년부터 반세기 넘게 광화문을 지킨 역사적 상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옮기지 말아야 한다', '두 위인 모두 현 위치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등 동상 이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오갔다. 그런데 '동상을 모두 철거하자'는 주장이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 관할 지역에는 더 이상 레닌 기념물이 존

재하지 않는다" 블라디미르 비야트로비치 우크라이나 국가기념물 연구소장의 이 말은 동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동상은 이상화의 수단이자 이념의 상징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가 전역에 세워진 볼셰비키 혁명 지도자 레닌의 동상 1320개를 모두 철거하며 구 소련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미술사학자 조은정은 "철저히 발주자의 의도와 취향에 맞춘 동상이 사회에 유통되고 있다"며 "동상이 근대에 생산된 관념적 이미지에 지배받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세종로에 설치됐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중무공 동상은 호국 안보를 제1의 가치로 삼는 '군사주의의 표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대왕 동상 건립에도 불구하고 세종의 정치철학의 핵심인 소통과 위민 정신은 가시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은 한국인이라면 이미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위인은 마음에 새겨져,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의 공간 광장에 동상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동상을 철거하고 광장을 비워 시민에게 돌려주자. /hjk1@metroseoul.co.kr

기아車 '쏘울 부스터 라이브쇼' 고객과 양방향 소통



기아차 쏘울 부스터 라이브쇼 포스터.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는 카카오와 함께 19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팀로드 스튜디오에서 토코쇼 형식의 '쏘울 부스터 라이브쇼'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기아차 공식 SNS와 카카오톡을 통해 생중계됐다.

'쏘울 부스터 라이브쇼'는 자동차 전문가와 기아차 쏘울 부스터 상품 담당자가 차량의 특징에 대한 고객의 궁금증을 듣고 대답하는 양방향 방식으로 진행됐다.

라이브쇼는 쏘울 부스터의 각 트림별 구성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쏘울 부스터 리뷰' 코너, 경기도 광주시 일대를 직접 시승하면서 쏘울 부스터의 주행 성능과 각종 첨단 기능을 소개하는 '시승 라이브' 등으로 진행됐다.

기아차는 더 많은 고객들이 기아차와 소통하고 쏘울 부스터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라이브쇼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양성문 기자 ysw@

오늘의 운세 2월 20일 (음 1월 16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대충교통을 이용할 때 계단조심. 60년생 곁집을 깨뜨리고 나와야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72년생 종로에서 뽕맛고 한강 가서 눈 흘길듯. 84년생 행복은 각자에게 고유한 것이니 남들의 기준에 맞출 필요 없다.
- 소** 49년생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매사에 조심. 61년생 허룽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다가 낭패. 73년생 다정도 병이니 가족에게 지나친 간섭은 금물. 85년생 소나기는 잠시 피하면 금방 그친다.
- 호랑이** 50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62년생 현명한 사람은 늘 공부하며 배우는 사람. 74년생 상대는 호기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착각. 86년생 결혼은 돌이키는 거지만 인생은 결국 혼자.
- 토끼** 51년생 손푼에 뚫던배 가듯이 손조로운 하루. 63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더 커진다. 75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내 마음도 당달아 상쾌. 87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으니 꾸준히 노력.
- 원숭이** 52년생 그물을 쳐 놔오니 고기가 잡히기를 기도. 64년생 여름이 가면 부채는 제 역할을 다한 것. 76년생 자식 자랑으로 입에 침이 마른다. 88년생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으니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 뱀** 53년생 원하던 일이 손조롭게 풀리는 듯하나 의외의 복병을 주의. 65년생 총인도 사람을 보가며 따라야 한다. 77년생 마음이 아파도 웃어야 하니 서글프다. 89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마음이 혼란.

- 말** 54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 잘못도 생각. 66년생 산토끼 잡으려 다 집토끼 놓칠 수 있다. 78년생 날세 탕만 하지 말고 일단 밖으로 나가라. 90년생 재물로 인한 갈등이 있으나 양보하는 게 유리.
- 양** 55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67년생 숨은 실력을 자랑하고 남들도 알아주는 기회가 온다. 79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91년생 운이 상승하니 용기를 내어 일을 추진.
- 원숭이** 56년생 멀리서 친구가 근심을 전해 준다. 68년생 새로운 인맥으로 얻은 정보가 큰 이익을 가져온다. 80년생 금전 문제 아니면 속상할 일이 생긴다. 92년생 생 좋은 결과는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명심.
- 닭** 57년생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 69년생 우물에서 송충 찾지 말고 매사에 순서대로. 81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서류는 잘 살펴야 한다. 93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해답이 보인다.
- 개** 58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하루. 70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으나 사람은 옛사람이 좋은 법. 82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하는 날. 94년생 마음 가는 대로 하루를 유유히 보내자.
- 돼지** 59년생 바람이 불고 비가 와야 비옥한 땅이 된다. 71년생 집안의 대청소를 시작해보라 막힌 운이 풀려진다. 83년생 피곤한 날이니 돈거래는 하지 마라. 95년생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내 손안에 있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6	4
7		8	9	4		5
1	4			7		
3		9	2		5	
	7				9	
	9			8		7
	4		5		1	
8	5	6				
7			9	5	4	3

	9					2
8	2			1	3	4
7			5			6
2			4			5
	7	9		8	6	
	4		2			8
	8		6			9
6	9	8			1	5
3						8

스도쿠 정답

5	7	5	6	8	1	2	4	9
2	4	6	8	9	7	5	1	8
9	8	1	2	5	3	4	6	7
2	4	8	9	7	1	6	5	3
8	6	9	5	1	4	2	7	3
1	5	7	2	4	6	8	9	5
6	4	2	9	3	5	7	8	1
5	1	2	7	6	8	9	4	3
7	9	8	1	4	6	5	2	3
1	2	5	8	7	9	6	3	4

문제 제공= 보너스



김상회의四季 육십갑자(六十甲子)

보통은 운명에 관심이 있으며 논리성을 알고자한다. 운명은 사람뿐 아니라 동식물 사물에도 적용이 된다. 사주학(四柱學)은 태어난 연월일시의 사주팔자로 운명을 판단하는 학문이다. 사주는 천간(天干)과 지지(地支)의 8자로 이루어지므로 천간과 지지 없이는 사주학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럼 사주를 구성하는 천간과 지지는 누가 언제 만들었을까. 사주학의 고전인 연해자평(淵海子平)에는 하늘이 황제(黃帝)에게 천간과 지지를 내려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황제가 치우(蚩尤)와 전쟁할 때 목욕재계 한 후 제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자 하늘에서 십간(十干)과 십이지(十二支)의 계시가(啓示)가 내려왔고 그 후 대요씨(大撓氏)가 이 십간과 십이지를 배분하여 육십갑자(六十甲子)를 만들었다고 한다. 사주명리학은 사주를 구성하는 천간과 십이지에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을 붙이고 음양과 오행이 서로 작용하는 관계로 운명을 판단한다. 우주의 만물은 음과 양으로 이루어지는데 양 가운데 음이 있고 음 가운데 양이 있다. 만물은 존재하려는 속성과 사라지려는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이것을 주역에서는 한번은 양이 되고 한번은 음이 되는 것이 도(道)라고 하였다. 음과 양은 서로 반대의 속성을 지니지만 다른 한쪽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다만 음과 양의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삼라만상도 변하는 것이다. 양(陽)은 존재 팽창 발전 빛 열 긍정 남자 하늘을 대표한다. 음(陰)은 소멸 축소 쇠퇴 암흑 차가움 부정 여자 땅을 대표한다. 그러나 음 가운데 양이 있고 양 가운데 음이 있으므로 순수하게 음만 있거나 양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행(五行)은 음과 양이 변화하는 과정을 5가지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로 구분한 것이다. 화는 양이 매우 왕성한 것이고 목은 양이 비교적 왕성한 것이다. 수는 음이 매우 왕성한 것이고 금은 음이 비교적 왕성한 것이다. 토는 금목수화 가 서로 변하는 작용을 매개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14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247호